

LPGA '진클럽스 오픈' 내일 개막
한국남자들 27명 출전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한 한국남자 9명중 새로운 얼굴은 모두 6명.

그리고 올해도 7개 대회에서 탄생한 3명의 한국인 챔피언은 모두 전에 우승컵을 들어올리지 못한 새로운 인물이다.

한때 박세리(29·CJ), 박지은(27·나이키골프), 김미현(29·KTF), 한희원(28·휠라코리아) 등이 독점하던 우승컵을 최근 2년 동안에는 무려 9명의 새 얼굴이 차례로 차지한 것이다.

때문에 27일(한국시간) 오후부터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리유니온리조트골프장(파72·6천531야드)에서 나흘간 치러질 LPGA투어 진클럽스 앤드 리조트오픈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27명 모두 우승 후보인 셈이다.

올해 처음 창설된 진클럽스 앤드 리조트 오픈은 '골프여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과 한국 남자군의 대결 양상이 될 전망이다.

2년차 신에 임성이(22·농협한삼인)에게 최종 라운드 역전패를 당한 소렌스탐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매경오픈골프 내일 '티오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괴력의 장타자를 초청한 제25회 GS칼텍스 매경오픈골프 선수권대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용인 레이커사이드골프장 남코스(파72·7천405야드)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작년 대회 우승자인 최상호(51·동아회원권) 등 90명의 국내과 프로·아마추어와 아시아투어 각국 멤버 및 PGA 초청 선수 66명을 포함해 15개국에서 156명이 출전해 자웅을 겨룬다.

아시아투어 대회이자 국내 프로골프 메이저대회답게 총상금은 6억원, 우승 상금은 1억2천만원이 걸려있다.

특히 올 시즌 PGA 무대에서 드라이브샷 평균 거리가 310.8야드로 2위를 달리고 있는 J.B.홉스(미국)와 작년 평균 318.9야드를 날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316.1야드)를 제치고 1위를 한 스텐 헛드(호주)가 초청됐다.

작년 켈리파잉스쿨을 수석으로 통과한 홉스는 올해 초 PGA 투어 FBR오픈에서 데뷔 네 번째 대회만에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대회 마지막 날 17번홀(파4.427야드)에서 드라이브샷을 가장 멀리 날린 선수는 3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 위상 **확**~ 달라졌네!

자가용 비행기 타고 들어온다네

한국 방문은 지난 2003년 제주에서 열렸던 CJ나인브릿지클래식 참가 이후 2년7개월여만이지만 그때와 지금 위성미는 위상이 달라져도 한참 달라졌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처음 '고국 방문'에 나서는 위성미에 대한 궁금증을 취재했다.

▲미국시민권 가진 한국인
위성미는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해외여행 때는 미국여권을 지닌다. 당연히 영어도 잘 한다.

“나는 뻗속까지 한국인”

그러나 위성미는 스스로를 '뻗속까지 한국인'이라고 여긴다. 태어나서 학교에 갈 때까지 듣고 배운 말이 한국어다. 영어는 학교에 입학한 뒤에야 배웠다.

집에서는 모든 대화를 한국어로 한다. 영어로는 미묘한 뉘앙스를 놓치기 쉽고 생각해서이다. 노래도 한국 노래를 더 좋아 한다. 갖고 다니는 MP3에는 한국곡이 일색이다. 요즘은 '동방신기'에 푹 빠져 있다.

▲공부는 언제 하나
위성미는 공부를 씩 잘한다. 우등생이다. 그런데 매일 골프 연습하러, 때론 경기에 출전하러나 한동안 학교를 나가기도 못하기도 하는 위성미는 그럼 언제 공부를 할까. 놀랄게도 위성미는 숙제를 모조리 자동

■ 내달 4일 SK텔레콤오픈 참가

“천만달러의 소녀” 위성미(17·나이키골프)가 오는 29일 타이거 우즈처럼 자가용 비행기 ‘컬프스트림 IV’를 타고 한국을 찾는다. 위성미는 5월4일부터 인천 영종도 스키야드72골프장 록힐 코스에서 열리는 아시아프로골프 투어 겸 한국프로골프 SK텔레콤오픈에서 아시아와 한국의 정상급 남자 프로선수들과 겨룬다.

차니 비행기 등 ‘탈 것’ 안에서 다 한다.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되어서 흔들리는 차 안에서 글씨를 잘 쓴다.

매일 해야 하는 숙제나 예습, 복습은 주로 학교 끝나고 골프장으로 연습하러 갈 때 아버지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에서 한다. 왕복 2시간 가량 걸리는 골프장 오가는 길에 숙제와 예습, 복습을 다 마친다고 한다.

대회에 나가면 좀 복잡해진다. 다른 선수들이 경기나 연습을 끝내고 쉬고 있을 때 호텔방에서 숙제를 하는 일이 많다.

숙제는 선생님에게 인터넷을 통해 보낸다.

“학교숙제 차 안에서 해결”

▲프로 위성미의 훈련
프로 선수 위성미의 골프 연습은 일상적인 반복 훈련이라는 점에서 다른 프로 선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샷을 할 때 일정한 순서를 지키는 ‘프리샷 루틴’이 있듯 훈련도 일정한 순서대로 한다.

연습장에서는 반드시 퍼팅 그린에서 퍼팅 연습을 맨 먼저 하고 쇼트게임, 벙커샷, 그리고 드라이빙 레인지

에서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치는 순서로 한다.

이런 순서로 하는 연습은 1시간 쯤 걸린다.

다음은 실전 라운드. 매일 9홀씩 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항상 볼을 2개씩 친다. ‘위성미A’와 ‘위성미B’가 서로 겨루는 식이다. 때문에 그냥 9홀을 도는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려 2시간이 넘는다.

프로 선수가 된 이후 훈련에 추가된 것은 체력 단련이다.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선수들을 주로 지도하는 캐나다인 전문 트레이너가 짜준 프로그램에 따라 매일 집에서 운동을 한다. ‘골프 선수가 사용하는 근육은 아이스하키 선수와 거의 비슷하다’는 분석에 따라 고트 트레이너다.

“돈 많이 벌었지만 쓸 일 없어”
유연성과 평형감각, 그리고 복근 강화가 주된 프로그램이고 3개월마다 한 번씩 프로그램이 바뀐다고 한다.

힘을 기르기 위한 웨이트트레이닝은 1주일에 3일씩 하는데 학교에 있는 헬스클럽을 활용한다.

▲돈은 엄청 벌었지만 쓸 돈도 없고 돈 쓸 일도 없다
위성미가 프로 선수가 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재벌 못지 않은 ‘부자’가 됐다는 점이다.

나이키와 소니가 스폰서를 맡으면서 1천만달러의 거금을 안겼고 작년엔 일본 카시오월드오픈에 출전하면서 150만달러라는 초특급 초청료를 받았다.

이번 SK텔레콤오픈에도 70만달러를 받고 출전한 것이다. 하지만 위성미가 벌어들이는 돈은 필요 경비를 빼고 모두 신탁계좌에 들어간다. 아버지나 어머니도 이 돈은 건드릴 수 없다.

말하자면 돈은 많지만 쓸 돈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굳이 돈 쓸 일도 없다.

■ 위성미가 타고 오는 비행기는

미셀 위가 타고오는 비행기는 세계 최상급의 비즈니스 제트기 ‘컬프스트림 IV’.(사진) 이 비행기는 내부 공간이 가로 2.2m, 세로 1.88m정도로 19인승으로 제작됐으나 일반적으로 13~16인승으로 개조해 운항한다.

이 비행기의 대당 가격은 옵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 2000만~3000만 달러(약 200억원~300억원). 한국에서는 대한항공이 1대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스타들은 이 비행기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대당 가격 200억~300억원...부모와 함께 3명 탑승

개인 소유보다는 항공업체와 계약을 통해 단기(시간당 5천달러 가량) 혹은 연간 단위로 이용하고 있다.

한편 2006 SK텔레콤오픈 진행을 맡은 세마스포츠 마케팅(대표 이상환)에 따르면 위의 한국 입국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자가용비행기 렌트 회사에서 ‘미셀 위 모시기’에 열을 올렸다는 후문. 이중 한 전용기 회사의 파격적인 조건을 받아들여 전용기를 타고 입국하게 됐다.

29일 입국할 때 미셀 위와 아버지 위병욱씨, 어머니 서현경씨 등 3명이 전용기를 이용할 예정이며 매니저



인 윌리엄 모리스 관계자와 캐디(그레그 존스톤)는 일반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태양광주택보급, 70% 무상보조 실시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무상 보조금 신청 접수, 신청순 마감
정부 무상 보조 신청 접수
태양광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에 대해 무상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순 마감입니다.
신청 대상: 태양광 발전기 설치 예정인 주택 소유자
신청 기간: 2006년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신청서 접수
문의처: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 사업부 (061) 369-1800 (061) 242-7704

제일모직 outlet 전대입구 사거리
제일모직 본사 특송상품권 위급
최저점 1회 가격으로 2회 혜택
60~40% 할인
제일모직 outlet
제일모직 본사 특송상품권 위급
최저점 1회 가격으로 2회 혜택
60~40% 할인
제일모직 outlet